

“선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 뿌리”

영문학계 선문답의 언어특징 규명

포스트모더니즘이 90년대 초부터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때, 영문학계에서는 선불교의 ‘언어 사용’과 비교해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정호교수(서울대)는 그의 저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영미문학의 이해’에서 “동양철학이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깊고 넓다”라고 지적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동양사상은 선불교와 노장사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화비평가 이합 합산(Ihah Hassan)은 그의 ‘다원주의의 포

스트모던적 조망’(1990)이라는 논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탈정전화’(脫正典化 decanonization)와 ‘축제적 요소’

직지인심(直指人心), 자신의 본성을 봄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견성성불(見性成佛) 등이 이합 합산의 탈정전화, 축제적 요소와 같다.

또한 문화비평가 알렌 와일

‘주장의 한계’에서 이교수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해 선불교의 언어 사용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선은 ‘불립문자’란 의미처럼

체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당나라시대의 선승 단하(丹霞) 스님은 목불을 쪼개서 불을 지핀 일화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단하의 일화는 지시어(목불)가 지시대상(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방해가 됨을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교수는 이처럼 선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지시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지시어는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던 고전적 언어관에서 해방된 언어이며, ‘뜻’을 지시대상으로 삼는 언어”라고 공통점을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이정호 교수 **동양사상이 철학적 배경 제공**
이합 합산 **敎外別典·脫正典化 공통 요소**
알렌 와일드 **화두의 해학과 ‘아이러니’ 밀접**

(carnivalization) 등 10가지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교수에 따르면 선불교의 정전(正典)화를 거부한 교외별전(敎外別典), 언어나 글자에 기대는 것을 배격한 불립문자(不立文字), 직관과 통찰을 통해 얻어 이르는

드는 “선불교의 화두는 선사 가 운수남자에게 주는 문제를 지칭한다. 그런데 선문답의 특징인 역설, 해학, 직관(直觀)은 아이러니를 중요시 여기는 포스트모던적 언어 사용의 예를 보여준다”며 그의 논문

문자나 말의 지시성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선의 중심이 ‘뜻’이라는 근본 출발점에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지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시어의 지시대상을 인정하는 사실 자

학술 단신

조선말 관영스님 초상화

정읍시 문화재지정 신청

정읍시는 고부면 두승산 유선사(주지 성수)가 소장해 온 조선말기 고승인 관영선사의 초상화를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달 21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 초상화는 세로 81.5cm 가로 55cm 크기로 중앙에 장삼 가사의 坐像으로 주위에 꽃다발이 놓여있고 소박함과 장중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보관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패물7점 문화재자료 선정

신원사, 갑사, 마곡사(이성 공주), 장곡사(정양), 용봉사(홍성), 광덕사(천안), 개심사(서산) 등 7개 사찰의 패물이 지난달 말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선정됐다.



◇경북 문경 사물산 대승사는 붉은 비단으로 싸여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사면석불의 설화와 대웅전이 조화를 이루는 신비감이 서려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환

대승사

무명전

墨池水滴曇花雨
(목지수적담화우)
淸磬聲傳具葉風
(청경성전구엽풍)

처의 성품이요 맑은 못에 비친 맑은 달은 선승의 마음일세 뜻은 고요하여 흐르는 물 따르지 않고 마을 한가로와 흰구름이 웃음 전해 주네.

해설 대승사는 오르는 길에서부터 매우 청쾌한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산이거 마을의 정겨운 풍치를 지나면 그야말로 출세간의 담박한 수행도량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의 아름다움은 이 절에서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은 물론 속진의 때를 벗고자 찾아 드는 중생들의 마음을 맑혀 주기에 모자람이

“세상만사 즐기는 개침의 노래”

煙霞淸淨塵無跡
(연하청정진무적)
水月空虛性自明
(수월공허성자명)
翠竹黃河皆佛性
(취죽황하개불성)
淸池皓月照禪心
(청지호월조선심)
意靜不隨流水動
(의정불수류수동)
心閑微笑白雲博
(심한환소백운단)

없다. 무명각의 주련이 풍겨 주는 이미지 역시 청정하다. 아무튼 앞의 네구절과 뒤의 네구절을 따로 음미해 보면 맑고 신선한 풍치 속에서 무상의 도리를 다 깨우쳐 버린 해탈의 미소가 느껴지는 것이다. 일체의 아름다움 그 자체 역시 공(空)한데서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성품이 저절로 맑아진다는 것이 앞 네 구절의 의미이다. 뒤의 구절들은 이미 깨달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어느 것 하나 불성(佛性)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매우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뜻은 고요해서 흐르는 물을 따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오늘날의 우리들 삶이 갖는 혼란스러움을 다시금 생각해 하기도 한다.

(안동 경안중 교사)

면 일을 남지 않는다는 당시의 풍수사상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국대민안이 수천년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선인들의 기원이 깃들여 있다”고 설명했다.

“팔만대장경 재질은 산벚나무”

박상진교수 ‘자작’ 통설 뒤집어... 돌배나무도 16%

고려대장경 경판제작에 사용된 나무는 지금까지 자작나무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산벚나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자작나무, 박달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 등이 1~3%의 비율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경판의 수종이 지금까지 자작나무로 알려져 온 것에 대해 김교수는 본초강목, 해동신서 등 옛 문헌에 자작나무와 산벚나무를 혼용하여 같은 화목(樺木)으로 표기한 내용을 각종 발표문헌에 자작나무로 단정해 인용하면서 생긴 오류거나, 거제도산(巨濟島産) 나무가 나무 높은 산에 자생하는 去災樹나무와 혼용돼 오다가 자작나무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우)

“스미스 ‘法·神 비교’ 종교이해 기여”

보조사상연구원 발표회서 류제동씨 주장

불교의 법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비교해 고찰한 캔트웰 스미스(美 종교학자,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는 불교를 이해하기보다는 불교인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신앙인들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각 종교에 대한 보

남에 대한 비교 연구의 가능성 고찰’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류씨는 스미스의 연구는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기 보다

“불교 열반은 기독교 하나님에 해당”

‘염세적 종교’ 그릇된 서구인식 비판

다 균형있고 본질적인 이해를 돕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류제동씨(서강대 강사)는 보조사상연구회(이사장 현호스님) 제1차 월례발표회에서 ‘불교의 법과 기독교의 하나

는 불타를 비롯한 불교인들에게 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법에 대한 불교인들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불교가 염세적이고

이지적인 종교라는 서구의 그릇된 인식을 설득력있게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상적인 외면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불타의 내면적 삶에 들어간다면 법과 신앙 대비찰에 있어 불교에서의 무신론은 재해석되어야 하며 불타를 비롯한 불교인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왔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고찰은 믿음체계가 아니라 그 믿음체계에 대한 신앙인들의 마음을 중시하는 연구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우)

선암사 연못 ‘삼인당’ 복원

이달 민간문화단체 착수

통일신라의 연못으로 최근들어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전남 순천시 선암사세 삼인당(三印堂)의 복원작업이 민간문화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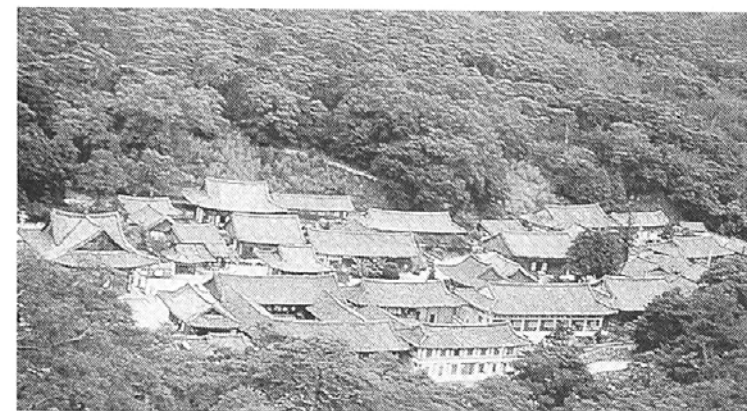
순천전통문화보존회(회장 박관수)는 지방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삼인당이 최근 수십년 사이에 석축 내부벽선이 변형되고 바닥에 토사가 쌓이는 등 원형이 훼손됨에 따라 3천5백여만원을 들여 본래 모습대로 복원키로 했다.

순천전통문화보존회는 이 연못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기리고 복원을 계기로 일반인

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그동안 문화재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토대로 삼인당 복원을 위한 설계를 마쳤으며 이달말 전남도로부터 현상변경승인을 받는데로 복원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삼인당은 길이 30m, 너비 9~13.5m의 장타원형 연못가운데 길이 10m, 너비 7.5m의 알모양의 섬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불교의 세가지 근본 교의인 三法印을 상징하고 있다. 통일신라 경문왕2년 도선국사가 절을 창건했다.

선암사 주지 지허스님은 삼인당에 대해 “거북은 천년에 한번, 그것도 남쪽 뜻이 아니



◇봉도사 전경

“자장율사 창건 ‘통도사’ 건축미 탁월”

김봉렬교수 주장 삼로전에 ‘3 중심사상’ 반영 통일성 갖춰

통도사 개산조 자장율사는 뛰어난 건축가였으며, 통도사는 창건주 자장율사의 3개의 중심 혹은 3개의 영역’ 개념이 철저히 적용된 건축물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문화재전문위원인 김봉렬교수(울산대 건축학)는 월간 <이상건축> 2월호에 기고한 ‘불교적 건축이론-통도사’라는 논문에서 불교건축의 축소판이자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는 사찰의 건축적 개념을 정립한 훌륭한 건축가였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논문에서 통도사는 한국불교의 모든 신앙요소와 교리적 체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장율사는 이들을 하나의 사찰에 수용하기 위해 삼로전, 종로전, 하로전 등 개별의 고유 성격과 가치를 지닌 3개

영역의 완결체를 이들이 모인 삼로전(三殿)이라는 또 하나의 완결체로 구축한 독특한 건축적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자장율사의 탁월한 건축적 수법은 중점과 분점, 연속이라는 정교하고 교묘한 양식을 전체적으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게 하고 있고, 휘어진 축들은 건물들의 입체적 중첩은 물론 공간적 규모까지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건물의 차원과 건물군 차원에서 부분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엮어어나가는 자장율사의 건축론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성이라 부분들을 조립해 나갔던 유교 건축과는 상반된 양식이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삼로전

각 영역의 구성에는 교리적 원리가 깃들여 있고, 둘째 이들 각각의 건물군은 단일한 중심 통로로 전체화되며 여기에 3개의 남북축이 부축을 형성, 시각적인 변화와 중첩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로전에서 삼로전까지의 크기가 5.4:3의 비율로 엄격한 건축적 기준이 적용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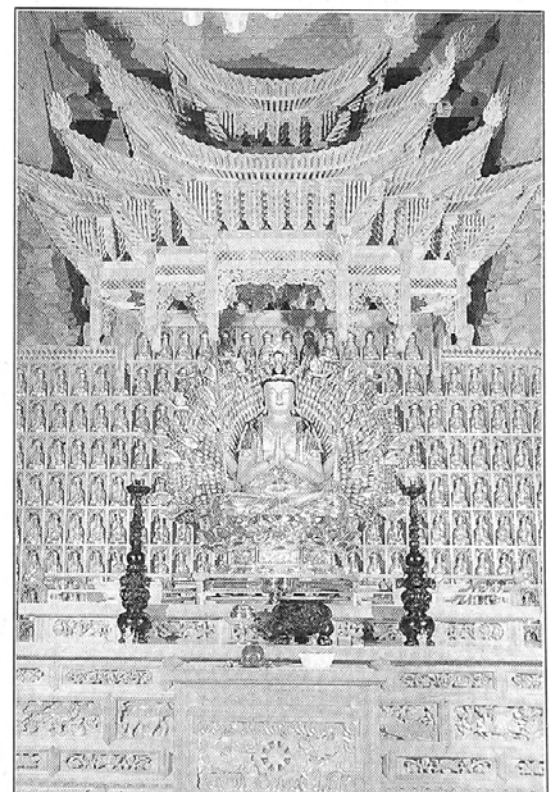
또 자장율사가 사찰건축에 적용했던 3개의 중심 혹은 3개의 영역’ 기본개념에는 계율과 장엄이라는 일관된 사상이 투영돼 있으며, 황룡사의 3개 금당 등에서도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이 잘 나타나 있음도 부연했다.

한명우 기자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담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